

지난 5월 31일 대통령직속 중소기업특별위원회가 영세 자영업자대책을 발표하였다. 발표의 핵심적 내용을 살펴보면, 자영업자의 시장진입을 규제하고 필요시 퇴출을 유도하겠다는 내용이 있다.

정부는 자영업자들의 영세성과 과잉경쟁에 따른 경영난으로 이들이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고 부실대출 등 경제 차원에서 낭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 정비를 해야 하는 이유라 설명한다.

이에 대해 대표적인 탁상행정이라는 비난이 쇄도하자 곧 바로 정부와 여당원들이 그 내용을 철회하겠다는 발표를 하였다. 정부가 위기에 빠진 한국경제의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하는 노력은 가상하지만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자영업자 대책 등 현실과 괴리감이 있는 정책을 발표하고 일주일도 안 되어 철회한다는 것이 참으로 안일하다는 생각이 든다. 경제활동인구의 30%를 차지한다는 240만명의 자영업자 생존이 걸린 중요한 문제가 어제 당·정간의 조율과 그 흔한 공청회 한번 없이 결정되어 발표되었는지 의아할 뿐이다.

자영업자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또한 단시간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서둔감이 없지 않으며 장기적인 안



불자 세상보기

송 일 호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자영업자도 '보이지 않는 손'

목을 가지고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자격증을 통한 진입규제는 '경쟁과 개방'을 지향하는 참여정부의 경제철학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시장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무너뜨리는 실로 엄청난 발상임에 틀림없다. 자격증제도를 진입규제 수단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은 자영업자까지 구조조정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비시장경제적 발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발상을 토대로 정부의 역할이 커지면 커질수록 민간경제는 위축되기 마련이다. 또한 이러한 규제는 반드시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정부가 뒤늦게

문제점을 인식하여 자격증을 규제의 일환으로 사용하지 않고 지원의 차등으로 이어지는 인센티브의 개념으로 사용하겠다는 점에 대해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한편으로는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점은 계속 남는다.

정부의 정책이 이처럼 오락가락하면서 국민들로부터 신뢰성을 상실하게 한 첫 번째 원인은 지난해부터 문제점으로 지적돼온 당·정간 조율이 정책협의 과정에서 사라지고 정책결정 이후 갈등으로 이어지면서 당과 정부의 입장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시계추현상'을 보이

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 정치적 논리와 이해 타산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두 번째 원인으로 영세 자영업자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분석에 문제점이 있다. 새로이 자영업을 위해 시장에 진입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기업에서 구조조정을 당해 일자리를 잃고 새로운 직장을 찾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자영업자들의 창업활동이 실업율을 많이 흡수해온 것도 사실이다. 영세 자영업자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외면한 채 자영업을 시작하기 어렵도록 진입장벽을 높이는 정책은 시장경제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가장 바람직한 시장형태는 완전경쟁시장이고 이 시장형태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자유로운 시장진입과 퇴출이 보장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정부는 진입장벽을 쌓는 노력 대신 오히려 자영업자들에게 충분한 시장정보를 제공하고 교육훈련을 실시하며 창업에 관련된 상담자 역할을 충실히 하는 등 간접적인 지원자의 역할을 해야 하고, 그 나머지는 시장의 가능 즉 '보이지 않는 손'에 맡겨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시장경제의 자율성과 효율성이 살아나고 경쟁력이 확보되며 궁극적으로 국민경제의 회복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들었다 마음의 장애

온갖 존재는 실체가 없고 평등할 뿐이다. 만약 온갖 존재에서 인품을 구분한다면, 이는 마음에 장애가 있기 때문이다. 마음을 떠나 별개의 실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비밀상경>

최근 한 국회의원이 '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표해 화제다. 그가 고쳐야 한다고 주장하는 법률안은 상법 73조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 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은 무효' 조항. 이는 정신지체장애인의 보험 계약을 인정하지 않는 조항이므로 사실상의 차별에 다름 아니다. 물론 현행 법의 취지는 장애인을 이용해 '영종한' 사람이 돈을 갈취하는 행위를 막자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장애인을 차별하는 요소는 사회 구성구석에 자리잡고 있다.

'장애인의 날' 등 '장애인'이라는 단어가 전면에 배치되는 특정 시기를 제외하고 그들이 사회로부터 인정받거나 관심의 대상이 되는 때가 몇 번이나 있는지부터 의문이다.

취재자 장애인복지관에 들렀을 때 만난 한 장애인은 교통사고로 후천적 장애를 얻었다는 데 형태마저 장애인이 된 자신을 피하는데 적지 않게 상심했다고 말했다. 또한 불자 장애인들의 경우, 힘든 마음을 다스리고자 찾은 사찰에서 일부 불자들의 '장애인은 전생의 업이 많은 사람' 발언을 듣고 상처를 받았으며 울분을 토하기도 했다.

'일반적이지 않음'에 우리는 얼마나 편협한 잣대를 들이대며 '일반적이지 않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혀왔는가. 이번 법률안 개정안은 환영하면서 모습이 다른 타인을 적대시하는 마음 속 편견도 벗어던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아울러 사회분위기가 차가워 약한 이들이 인정받고 그들과 공존해야 한다는 인식이 충만해지는 쪽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바람이다.

■김강진(혜재부지자)

독자의 소리-이렇게 생각한다

수립장 참 좋은 생각

529호 현대불교신문에 실린 수립장 기사를 보고 참 많은 공감을 했다. 어느 시대, 어느 사회나 일종의 흐름이 있고 트렌드와 유행이 있다. 이제 장례문화의 트렌드는 납골의 벽을 넘어서는 것 같다.

사실 그동안 납골탑이나 납골묘 등이 오히려 자연환경을 해친다는 논란이 많았었다. 그에 비하면 수립장은 친환경적이면서 추모의 공간을 제공한다는 점이 참 매력적이다.

특히 화장제도 정착에도 앞장서 온 불교계에서 은혜사 일불사 장안사 등이 앞장서 수립장 정착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모습은 꽤 보기 좋다. 일부 사찰들의 무분별한 납골탑 건립으로 사찰이 환경파괴에 앞장서고 있다거나 호화 납골탑이라는 비난을 듣기도 했던 만큼 빈손으로 와 빈손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수립장은 불교계의 장례문화화 선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수립장을 하는 곳이 더 많아져 모든 국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으면 좋겠다. 정미숙(부산연제구 연산5동)

해외포교 중요성 알아야

최근 법장 스님의 미국방문은 드디어 종단에서 해외포교의 중요성을 인식했다는 측면에서 적극 환영한다. 오래전부터 송산 스님께서 해외 포교를 하며 많은 고

생 끝에 대 성과를 거둔 점은 종단차원에서 높이 평가해야 할 일이다. 조계종의 수장인 총무원장 법장 스님이 방문했다는 전지효과에만 그치지 않고 1만3천부가 팔렸다고 한다.

실속있고 내실있게 해외포교에 현실적 도움을 줄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안이 되어야 할 것이다. 부처님 법을 흥포하기 위해 많은 스님들이 고생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다. 이 분들을 위해 종단에서 해외포교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런 스님들에게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아야겠다. 해탈심(부다뉴스)

간화선에 대한 욕망?

조계종이 지난 5월에 펴낸 <조계종 수행의 길, 간화선>이 출간 이후 한 달 만에 1만3천부가 팔렸다고 한다.

<간화선>의 주문이 밀리고 있어 벌써 4쇄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듣고 참 기뻐했다. 일간지 기사는 몇 년 전부터 계속된 출판계의 불황을 생각할 때 <간화선>의 인기는 이례적이라는 출판계의 반응도 소개하고 있었다. 주제가 불교여서가 아니라 독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내용을 소개하지 못해서 불교책이 안 팔린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했다.

물론 지금까지 참 좋은 책들이 많이 나왔었다. 그러나 에세이 류의 서적을 제외하고 본격 수행서가 이렇게 인기를 얻는 것은 처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더

구나 조계종 내부에서도 종교서적이 단기간에 붐을 이루는 것이 매우 드문 일이라고 진단하는 것을 보면 본격 수행서에 대한 수요의 목마름도 이번 책이 인기를 끌게 된 요인이 아닐까.

앞으로도 <간화선> 같이 독자가 원하는 불교 서적이 많이 나오기를 바란다.

김민경(서울 강남구 개포1동)

열린선원 개원, 새로운 포교

얼마전 인터넷 카페 열린 절이 오프라인으로 나와 열린선원이 됐다든 소식을 접했다. 인터넷 카페가 오프라인으로 나와 선원을 개원할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이 대안하다는 생각이다.

열린선원은 21세기 선교방편연구소를 개설해 불교 포교의 비전을 제시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기대도 크다. 지금까지 불교 포교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는데 등한시하고 있었다는 느낌이 든다. 불교계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다른 변화 없이 안일한 생각으로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가 하고 아쉬움이 컸었다. 열린선원을 보면서 전통을 지키며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변화하는 현대에 걸맞은 포교방책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전통사찰은 전통사찰 나름대로 도심포교당은 포교당 나름대로 포교의 방책은 달라야 한다. 열린선원의 새로운 시도에 박수를 보낸다. 박은수(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불자의 눈

보건복지부가 미신고 복지시설을 선별적으로 양성화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7월말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강제 폐쇄하겠다는 입장에서 이렇게 선별적으로 양성화하겠다는 입장으로 바뀐 것은 매우 환영할만한 일이다. 일률적인 기준과 확정된 날짜를 정해놓고 신고하지 못하면 강제 폐쇄할 때, 양심적으로 운영해 왔던 많은 시설들이 억울하게 폐쇄되거나 억지충량이 식으로 부풀려 기준에 맞추는 불성실한 신고를 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입장을 바꾼 것은 탁상행정식의 기준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관료주의적 구태를 벗은 것이며, 현실을 반영한 융통성 있는 행정을 펴는 자세를 보인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그렇게 선별적 양성화를 시켜가는 과정도 민관합동 실태조사단의 조사를 통해 한다 하니 이를 계기로 보건복지부가 복지시설의 현장을 여실히 파악하고 효과적인 복지행정을 펴 나갈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까지 하게

미신고 복지시설을 위한 숙제

된다. 현실에 바탕을 두면서 그 현실을 한 차원 향상시킬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펴는 것이 선진적인 복지사회를 이룩하는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부의 긍정적인 정책 전환을 계기로 불교계도 미신고된 복지시설을 양성화하여 한 차원 높은 복지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무조건 좋은 일을 한다 하여 복지사업이 될 수는 없다. 여건과 역량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복지사업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며, 불교계에 불명예와 오욕을 끼칠 뿐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 정부의 정책이나 조치를 귀찮은 간섭으로 여기지 말고, 현실적인 정책이 제시되었을 때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자세로 받아들여 불교 복지사업을 업그레이드 시킬 필요가 있다.

종단 차원에서 교계 복지시설을 점검해 보고, 필요한 지원을 통해 신고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물론 복지시설 운영자의 적극적인 의지가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겠지만, 그것을 현실화 할 수 있는 토대를 세워주는 범불교적인 관심과 지원이 있어야 낙후된 불교 복지사업의 활성화를 향한 큰 걸음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성대용(한국대 철학교 교수)



“행복한 가정 만들기” 제6기 가정폭력 전문상담가 교육생 모집

가정폭력의 증가로 인한 가정해체 현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불교계에서도 가정폭력 전문상담원을 양성 『불교가정폭력상담소』를 곳곳에 설치하여 불행한 사람을 행복으로 이끌어가는 불국도를 만듭시다

본 프로그램은 가정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하여 가정폭력 상담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보다 질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목적으로 한다. (상담윤리 7시간, 여성학 15시간, 가정복지 6시간, 상담학 23시간, 심리검사 6시간, 법 9시간, 가정폭력상담 15시간, 성폭력상담 13시간, 상담실습 7시간) 등 다양한 접근으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 1. 대 상: ① 자원봉사 희망자 ②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 ③ 가정폭력 상담원 및 1366 상담요원 희망자 ④ 가정폭력 상담소 설치 희망자
2. 제출서류: 경력증명서, 수강신청서
3. 연수기간: 2005년 6월 29일~8월 13일까지(오전 10시~12시, 오후 1시~4시까지)(강의따라 요일 변경)
4. 장 소: 연꽃 교육장(인사동 4거리 상 갤러리 4층 401호)
5. 수 강 료: 24만원 (당일 등록시 25만원)
6. 모집인원: 39명(선착순)
7. 신청방법: 입금후 전화신청(입금처: 우리은행 098-088769-01-501) 예금주: (사)한국여성불교연합회
8. 신청기간: 2005년 5월 30일~7월 1일까지
9. 문 의 처: (사)한국여성불교연합회 TEL 02)738-5586, FAX 02)738-7576 http:kwba.or.kr / 한국여성불교연합회 / E-mail : kwba@orgio.net

\*본 프로그램의 수료증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인정합니다.

- 1. 본 프로그램 이수자에게는 여성부 인정 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자격을 수여함.
2. 본 행복한가정상담소에서 필요시 상담활동(봉사·유급)을 할 수 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여성불교연합회 중앙본부

하기책자 3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중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중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해천법사

- 책 짜 내 용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중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로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계의 상장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중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주택중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계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해천법사

-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가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영기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예언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장엄한 영기인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 책 짜 내 용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기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기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제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제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제를 지낸 후 생활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해몽법

상담문의 및 책자 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 (능원빌딩 3층) 전화: 031334-9490, 334-9491